

積土成山 風雨興焉 積水成淵 蛟龍 生焉 積善成德 神明自得 聖心備焉 故不積頃步 無以至千里 不積小流 無 成江海 驥一躍不能十步 駑馬十駕 功在不舍 鍤而舍之 朽木不折 鍤而不舍

第 45 輯

金石可鏤

錄荀子勸學篇中語
書于閱經樓青溪任昌淳
廿九年十月

翰 林 大 學 校
泰 東 古 典 研 究 所

탈유교사회 유림 네트워크 분석 시론*

홍성덕**

〈차 례〉

1. 머리말
2. 유림 네트워크 조사 분석 방법
3.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현대 전환기 유학자의 사회관계망 분석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시론적인 글이다. 식민지배와 함께 한국은 탈유교사회로 전환되었다. 식민지 근대는 전통의 해체를 요구하였고 전통의 해체는 유교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전통적 유림이 유교문화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가 근대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유학자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유학의 계승을 놓지 않았다. 탈유교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한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근대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본질과 위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 유학의 지형도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근현대 유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대 한국사회에서 유학이 가지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탈유교사회에서 유교문화가 가지는 규범성이 파악하고 21세기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한 유학의 기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회관계망 분석은 유학자의 개인 문집에서 관계형성자를 추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관계망 분석은 시계열적으로 재배열되어야 하며, 유학자의 지리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유학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관계의 위계성 여부로 검증되어야 한다.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근현대 유학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인적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며 출처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은 인명DB와 출처DB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유학자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형 분류와 기술(記述) 내용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불특정의 두 유학자가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해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근현대 유학자에 대한 정보는 전근대보다 상대적으로 파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okjeonju@hanmail.net

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따라서 시스템은 확장과 변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제어] 탈유교사회, 유림, 사회관계망, 관계형성자, 유학자사회관계망시스템

1. 머리말

조선의 문화적 기반은 유교에 있다. 일제는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식민지 체제에 적합하도록 재편해야만 했다. 조선 유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식민지적 관점에서 평가절하되어야 했고,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조선 유학사는 저급한 주자학사’라 평가절하했던 다카하시 도루의 견해¹⁾는 조선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조선의 유학이 오직 주자학만을 수용하는 사대주의적 편향에 빠져 있으며, 가문 중심의 문화가 국가주의를 해체하였다는 주장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²⁾

이러한 식민주의자들의 주장은 왜곡되었으나 현실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했다. 근현대 전환기 한국사회에 대한 유학적 관점과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제된 근대의 시작으로 유학을 기반으로 전통적 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통의 해체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생각이 만연해졌고 유교의 당파성이 결국 조선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유포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의 시작은 탈유교문화, 탈전통으로 인식된다.

식민지 근대 조선이 탈유교사회³⁾, 탈전통문화를 지향했을 수 있으나 조선사회가 피식민지가 되면서 탈유교사회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 탈유교사회로

-
- 1) 다카하시 도루 지음,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9, 77쪽.
 - 2)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식민지 근대성의 그늘, 너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2집, 2015.12, 100-103쪽.
 - 3) 탈유교사회는 조선시대 유교문화 전통이 근대 서구사상의 유입과 함께 자율적·타율적으로 변화된 사회를 가리킨다. 시기 구분에 따르면 근현대에 해당하지만, 일본에 의한 강제된 근대화 과정 때문에 유교적 전통은 근대성에 의해 배척해야 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근대화 과정 속 유교문화의 역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

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근현대 유학자들은 여전히 문인을 중심으로 조선의 도통(道統)을 이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전통적 도통의 복원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해방 이후의 사회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유학자의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변삼사(處變三事)로 대표되는 유학자의 선택⁴⁾은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근현대 유학자 연구는 생애, 교류, 사상 중심의 개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 성리학적 심성론과 수양론을 바탕으로 그 학문적 연원을 밝히면서 사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누구의 제자이며 함께 교류한 사람들은 누구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학자를 도통의 계승과 보존, 성리논쟁의 담론의 줄기에 위치 지우려 했다. 반면 독립운동과 같은 투쟁적 행동은 유학이 아닌 민족주의 운동사적 관점에서만 분석되고 있다. 유학자로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보다는 민족주의적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

본고는 탈유교사회 속 근현대 유림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시론적인 글이다. 탈유교사회 유림 네트워크 분석은 기존의 유학자 연구 패러다임에서 개인의 능력과 사상적 특성에만 집중한 경향에서 벗어나 식민지 조선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가 맺고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탈유교사회 유학자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근대 유림에 비할 때 근현대 유림의 네트워크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⁵⁾

근현대 유학자는 그들이 ‘근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전통적 유학 사상의 뒤를 잇는 다양한 담론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4) 처변삼사(處變三事)는 유인석이 의병 초기 사우(士友)를 모아 의논한 것으로 ‘舉義掃清, 去之守舊, 自靖遠志’를 말한다. 『昭義新編』 卷2, 「雜錄」.
 - 5) 탈유교사회 유림의 네트워크 분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근현대 유림의 경우 전통적인 활동 공간이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현대인이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시대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는 기억이 소멸되기 전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전근대 유학자보다 용이하다. 둘째, 근대 이행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철학적 담론, 전통적 유학의 근대적 변용과 일탈이 시작되는 시대적 격변기가 초래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유학자의 처세관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세관의 변화는 전통 성리학 담론의 논쟁에 대한 시대적 한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근대적 관점에서 유학망국론의 이분법적 해석에서 유학과 근대의 상관성, 유학의 탈유학사회의 변용, 유학의 본질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근현대 유럽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하며, 시스템화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⁶⁾

2. 유럽 네트워크 조사 분석 방법

전통적 성리논쟁의 범주 안에서 유학자의 철학적 위치를 가늠하려는 일련의 연구는 사상적·학문적 네트워크를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 생애를 검토하고 사승관계를 살핀 뒤, 그의 사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분석해 사상의 특징을 정리해 낸다. 이런 점에서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은 역사·철학 연구에서 이미 시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⁷⁾ 다만 그런 분석이 지나치게 ‘사상’에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은 유학자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보다는 ‘학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조선후기 이래 집중된 성리논쟁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다소 계몽주의적 연구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유학자는 ‘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근현대 유학자는 전통적 사회질서에서 벗어나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 속에 놓여 있었다. 조선의 멸망과 피식민지로의 전락은 성리학적 담론에 치중했던 유학자에게 ‘식민지 조선의 현재’에 답해야 할 하나의 과제였다. 유학자 연구가 다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사상 연원’에 집중하는 연구만으로 탈유교사회 근현대 전환기에 살았던 유학자의 올바른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기초학문자료조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학래,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연구」, 『울곡사상연구』 제26집, 울곡학회, 2014, 227쪽 참조. 본고는 위 사업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7) 조선시대 유학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참조.

1) 네트워크 분석 필요성

근현대 유학자의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학자를 이해하고 그의 사회적 행동이 당대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집합 속에서 이루어진 유학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유학자 역시 타인과의 접촉과 작용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만든다. 즉 유학자의 위상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문적 네트워크와 활동 공간의 관계성 및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다양한 유기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유학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인 활동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고 사상을 형성한다. 그런 관점에서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유학의 지형도를 분명히 하고 관심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유학의 전개 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학술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확대되었다. 논쟁의 생산 진행은 학문적 동질성을 전제로 학파를 형성 분화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하게 분화하고 연결되는 한국 유학의 큰 줄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⁸⁾

둘째, 유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유학 연구가 성리학적 담론 논쟁으로부터 시대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기도 하다. 전통적 질서의 파괴와 근대 사회의 형성에 유학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근대 자본주의 담론에 대한 유학의 설명이 형이상학적 접근에서 대중적 해석⁹⁾으로 다가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조선 지배, 근대 산업화와 사회 분화, 외래종교의 유입, 신분제의 해체와 전통적 향촌 지배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8) 박학래, 앞의 논문, 220-223쪽.

9) 탈유교사회의 유림 역시 근대산업사회 속의 삶을 영위한다. 대중적 설명은 유학자들이 대면했던 다양한 근대 문물, 사상 등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말한다. 유학자들이 서구사상과 철도, 자동차 등 근대산업의 발명품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향촌 지배 담론의 인식 등 근현대 변혁기 조선 사회와 조선인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유학의 사회 융합적 해석이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강제된 근대 산업화에 놓인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근현대 전환기 한국 사회는 전통질서의 타율적 해체와 식민지 사회로의 재편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혁기를 맞이하였다. 자율적 사회변화에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는 식민지배적 논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반민족적 연구 프레임이 식민지 조선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를 규범화하였다.

근대 이행기 유학자 네트워크 연구로 전통 유림이 근대화 과정에서 취한 사회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신분제 질서가 유지되던 사회에서 형성된 유학자의 네트워크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의적·타의적으로 새로운 관계망에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관계망의 유지 확대는 유학자의 ‘행위 문법’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¹⁰⁾ 개인의 특징에 의해 관계망이 형성되고, 확대된 관계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 사회의 성격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학(유학자)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유학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성리학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다. 유학자 네트워크와 관계 속성에 대한 분석은 ‘규범적’ 유학자의 모습을 보다 더 인간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이는 대중적으로 유학의 전통성을 반근대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동시대 삶을 영위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확인케 함으로써 전통 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학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식민근대화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신설로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사회간접시설의 근대화는 전통적 유교사상의 유지 확산의 측면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된다. 전근대보다 유학자의 활동 반경은 넓어졌고 이는 유학사상의 영향력이 지역 생활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10)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2015, 29쪽.

특징으로 나타난다.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은 유학 사상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주제이다.

2) 관계형성자 추출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은 유학자가 속한 인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체, 조직 등의 사회망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러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학연·혈연·지연으로 구분되는 관계 형성 계기는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의해 다르게 분화한다. 관계를 맺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 계기를 분류·특성화하여 시공간의 변화 속에서 추적 분석할 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의 속성과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성을 확인 분석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현재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용이하다. 시간적으로 삶이 단절된 사람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분석 대상과 연결된 사람들을 추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 역시 생존하지 않은 유학자의 관계망을 추적하는 것이므로 유학자가 남기거나 유학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다양한 자료들 속에서 관계형성자를 추출해야만 한다.

(1) 개인 문집 및 저서

일반인들과는 달리 유학자의 네트워크는 그들이 남긴 저작물(문집, 저서)을 통해 관계형성자를 유용하게 추출할 수 있다. 문집은 개인 저작물로 시(詩)와 문(文)을 분리하고, 시는 창작 연대순으로 문은 문체별로 정리하여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문집에는 대체로 평균 15개 내외의 문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미디어한국학에서 구축한 한국학종합DB ‘한국역대문집총서’에서는 문체 종류는 아래와 같이 94여 종으로 분류하였다.

11)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체제」, 『한국문화』 72, 2015.

가사(歌辭), 가승(家乘), 가전(家傳), 간찰(簡札), 개(偈), 격(檄), 계(啓), 고(誥), 고문(告文), 고유문(告由文), 공사(供辭), 교(敎), 규(規), 기(記), 노포(露布), 뇌문(誄文), 논(論), 단자(單子), 도설(圖說), 만사(輓詞), 맹문(盟文), 명(命), 명(銘), 모연문(募緣文), 묘지명(墓誌銘), 문대(問對), 발(跋), 변(辨), 변려문(駢儷文), 봉사(封事), 봉안문(奉安文), 부(賦), 비답(批答), 사(辭), 사(詞), 사략(事略), 사론(史論), 사찬(史贊), 상량문(上樑文), 상서(上書), 상언(上言), 서(序), 서(書), 석(釋), 설(說), 세가(世家), 소(疏), 소문(疏文), 송(頌), 시(詩), 실록(實錄), 애사(哀辭), 애책문(哀策文), 연보(年譜), 영(令), 완문(完文), 원문(願文), 유(諭), 유(遊記), 윤음(綸音), 의(議), 이문(移文), 일기(日記), 자문(咨文), 잠(箴), 장(狀), 제사(齋詞), 전(傳), 전(箋), 정문(程文), 정사(呈辭), 제(題), 제문(祭文), 조(詔), 족보(族譜), 주(奏), 주소(注疏), 지(志), 진향문(進香文), 차(劄), 찬(贊), 책(策), 책문(冊文), 첩(帖), 청사(靑詞), 축문(祝文), 치어(致語), 표(表), 품목(稟目), 함사(緘辭), 해(解), 행장(行狀), 회문(回文), 훈계(訓戒)¹²⁾

문체 역시 시기별로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록 순서는 일반적으로 부(賦)·서(書)·소(疏)·잡저(雜著)·서(序)·기(記)·발(跋)·명(銘)·제문·묘갈명·묘지명 등이다. 이외에 부록의 형태로 저자의 연보·가장·행장·묘갈명·묘지명·신도비명·묘비명·만(輓)·제문 등이 포함된다. 문집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적 정보들을 추출하여 정리한다.

문집에서 관계형성자 인명정보를 추출할 때 먼저 유학자와 당대에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예컨대 묘갈의 경우 묘갈 대상자는 같은 시대 인물이 아닌 경우들이 있으므로 묘갈 내에 유학자의 관계형성자를 확인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별로 문체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 그 글을 쓰게 된 연결 인명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핵심 대상 인물은 간접적 관계망으로 참조 인물에 속한다.

다음으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처정보(문집 내 인명정보가 수록된 문체)를 중심으로 기본 정보를 정리한다. 모인(某人), ○씨 등으로 쓰여 있는 경우에도 일단 추출해 놓은 뒤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 연결정보를 부기하여 파악한다.

12) 한국역대문집총서 문체분류, 한국학종합DB, 미디어한국학.

세 번째로는 문체별 인명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특히 간찰의 경우 내용 중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1:1의 관계를 넘어 다수의 사람과 관계된 연결점을 확인하는 정보이다. 이 경우 출처정보 내에 관련 인물 정보로 정리하며 관계형성자에 포함하여 정리한다.

네 번째 인명정보가 포함된 문체 중에서 지리 공간 정보가 있는 경우 부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관계 형성의 배경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의 관계 형성은 서신에 의한 교류가 중심이며 대면 교류의 경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학자가 이사나 강학, 유람 등이 이유로 이동하는 공간의 동선은 대면 교류의 계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문집의 관계형성자 추출은 상대적 조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권력의 발생¹³⁾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의존도의 대칭성 여부 분석을 통해서 관계성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의 문집 내에 상호 간의 출처정보(수록된 문체의 수)는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관계성의 밀도(깊이)를 측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집류에서 뽑을 수 있는 인명정보를 문체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집류 내 관계형성자 인명정보 추출 예시

문집 문체	성명	호	자	본관	선대	사승	단체, 조직	관계내용
시 문	○	○	○	-	-	-	-	△
간 찰	○	△	△	-	-	-	△	△
서·기·발문	○	△		△	○			△
행 장	○	○	○	○	○	○	○	△
연 보	○	○	○	○	○	○	○	○
묘 갈	○	○	○	○	○	○	○	○
만사·제문	○	△	△	-	-	-	-	△
신도비문	○	○	○	○	○	○	○	○

13) 김용하, 앞의 책, 10-12쪽.

(2) 문인록 등의 인명부

유학자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학문적 관계는 사승(師承) 관계를 통해 사문(師門)으로 확대된다. 15세기 사림세력의 등장으로 학문적·정치적으로 동류 의식이 강한 집단성을 띠면서 학파를 형성하였다. 학파 형성이 늘어나면서 학통을 밝히기 위한 문인록 편찬이 나타난다. 사우·문인록의 간행은 유학의 계보 의식을 강화하면서 도통(道統) 의식으로 발전하여 『연원록』의 편찬으로 이어졌다.¹⁴⁾ 문인록의 편찬은 1914년 퇴계 이황의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간행 이후 확대되었다. 문인록은 편찬의 주체에 따라서 이본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 간재의 경우 5종류의 문인록이 현전하며 문집 내 문인록 편찬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두드러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문인록 중 편찬연도가 분명한 52권의 문인록 중 43권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간행되었다.¹⁵⁾

유학자 인명록의 간행은 문인록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었다. 고종 대 훼손된 서원들이 일제강점기에 복설되고, 교육기능을 상실하였지만 사회교육기관으로 개편된 향교를 중심으로 유생의 인명부가 간행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76종의 『청금록』 중 57종이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이다.¹⁶⁾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때에 조직된 유림계, 모성계 등의 계안(契案), 향안(鄕案), 유안(儒案) 등 역시 1930년대와 1950년대 후반~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전라도 지역 유학자 인명부는 『광주향교모성계안(光州鄕校慕聖契案)』(1933), 『금진시계명부(錦珍詩契名簿)』(1924), 『낙안유림안(樂安儒林案)』(1934), 『남평청금안(南平靑襟案)』(1933), 『남평향교유안(南平鄕校儒案)』(1935), 『대동유림합동안(大東儒林合同案)』(1939), 『동유학안(東儒學案)』(1944), 『무안군유안(務安郡儒案)』(1929), 『무안청금안(務安靑衿案)』(1926),

14)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제41집, 2012, 266-276쪽.

15) 설주희, 「간재 전우 문인록의 편찬과 특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2016.6.

16) 설주희, 위의 논문, 2016.

『보성향교존성계안(寶城鄉校尊聖契案)』(1919), 『속수영광향안(續修靈光鄉案)』(1934), 『송사유안(松沙儒案)』(1933), 『영광향안(靈光鄉案)』(1933), 『유림원류(儒林源流)』(1934), 『유안(儒案)』(1933), 『장성군청금록(長城郡靑衿錄)』(1926), 『장흥향좌목청선생안(長興鄉座目靑先生案)』(1921), 『전남도청금안(全南道靑襟案)』(1921), 『진안향보(鎭安鄉譜)』(1931), 『함평청금안(咸平靑襟案)』(1932) 등이 현전하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이후 다양한 유학 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유학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한말·일제 강점기 유학 유사단체로는 대종교(1907 창립), 태극교(1907), 대동학회(1907), 대동교회(1909), 공자교회(1909), 한인공교회(1913), 대동사문회(1920), 유도진흥회(1921), 유도단명회(1921), 공자교(1923), 대성교회(1923), 경남유도협성회(1924), 대성학원(1926), 유림건약소(1926), 모성공회(1927?), 명륜도약소(1927), 성도교(1929), 대성교(1929), 모성존도원(1929), 대성원(1930), 유교부식회본부(1931?), 조선유교회(1932), 경상남도 유도연합회(1933), 조선유도연합회 등이 있었으며, 각 단체는 전국적으로 조직화했다. 다만,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모두를 유학자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명부 기록은 기본 인명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인명부류의 기본 정보는 기록의 유형에 따라 기재된 항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명, 호, 자, 본관, 생년, 거주지, 선대, 관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정보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여 정리한다. 다만 동일인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동일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유념해야 한다. 성명만 기록된 인명부와 자·호·본관 등이 함께 기록된 인명부가 있을 경우 단순히 성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으로 정리할 수 없다. 동일인 여부의 판단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때까지 유보한다. 인명정보 추출은 유학자에 한하지 않는다. 인명부 내의 인명정보는 모두 정리하여 향후 관계형성자를 대비 비교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족보

족보 역시 유학자와의 교류와 사승관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일제강점기에 총 1,547종의 족보가 편찬될 정도로 족보는 일제강점기 가장 많이 출판되는 서적이었다.¹⁷⁾ 족보에는 수록자의 기본 정보(생년, 몰년, 자, 호, 묘지)와 관력 및 행적, 학문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유학자와의 관계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예를 들어 함평이씨 족보 내 간재 전우 관계형성자로 문집이나 문인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방헌의 경우 그 행적에 “공은 덕행과 문장이 훌륭하였으며 면암 최익헌, 영재 이견창, 지산 김복한, 간재 전우 등의 이름난 학자들과 교류하여 모두 방산선생이라 칭하였으며 문고를 남기시었다”라 하여 간재 전우와의 교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족보에서 확인하는 인명정보는 문중 내 다른 관계형성자로 확대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함평이씨의 경우 실제 간재의 문인으로 문인록에 등재된 사람은 총 23명¹⁸⁾이며, 문인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으로 관계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도 4명이었다.

족보를 통한 관계형성자의 추출은 지난한 작업이다. 따라서 유학자와 직접 관계 형성이 확인된 인명이 수록된 족보를 중심으로 확대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관계 형성이 특정한 혈연적 집단과 연결될 경우 혈연 내 관계 밀집도(혈연적, 공간적)를 중심으로 파생되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계형성자의 혈연망을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범주를 신중하게 설정하여 조사해야 한다. 또한 족보를 조사할 때 처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 형성이 다른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될 경우 관계 형성의 유형 분류는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관계 형성을 맺게 되는 배경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처가의 선대에 대한 정보에는 관계 형성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 조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혼맥 정보와 주거 공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17) 최재석, 「자료-일제하의 족보와 동족집단」, 『아세아연구』 12(4), 1969, 221쪽.

18) 『화도연원록』

가문에 대한 선별 조사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혼맥에 의한 관계형성자 파악은 구술을 통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4) 고문서류와 현판·금석자료

관계 형성을 밝힐 수 있는 연명된 고문서 자료와 문집 등에 수록되지 않은 금석자료 및 인명정보가 기재된 중수기 등의 편액, 시회(詩會) 자료 등이 있다. 고문서 자료의 경우 연명이 들어가는 소지류와 통문류의 문서들이 대표적이다. 소지와 통문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와 참여를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연명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활동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간접적 관계 형성임을 증명한다.

고문서 자료의 경우 인명정보가 포함된 호구단자와 같은 문서를 제외하면 단순한 ‘성명’만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연명된 고문서 자료의 인명정보를 고문서의 내용정보와 연계시켜 추적할 경우 유학자의 관계형성자를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수집된 고문서의 집적도가 강할수록 인명자료의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산송 문제에 연명한 경우 혈연관계의 밀도를 설명할 수 있고, 효열 표창의 통문은 각 향교·서원 별로 연명되기 때문에 향교와 서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회관계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연명된 사람들 중 관계형성자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파악될 때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현판·금석자료의 경우 연명된 인명정보가 있는 것은 중수기 등의 편액 자료와 묘비, 신도비 등이다. 건물의 증개축에 기문 말미에 의언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연명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건물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한다. 연명된 사람들이 상호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내에 위치해 있어 건물의 운영 주체 또는 관련 단체와 조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간접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고문서류와 금석자료의 경우 연명된 인물들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정할 수 있는 분명한 관계형성자를 매개로 관계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자료의 집적화가 진행될수록 관계망의 범주 또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5) 구술조사

구술조사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객체에 대한 전승된 기억을 찾아 내는 것이다. 이는 기억의 대상과 구술자 사이의 직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작업이다. 조사하고자 하는 관계형성자와 구술자 사이의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을 때 구술자의 기억 정보는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으로 생산된 정보의 기억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된 기억은 때로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다. 구술자가 관계형성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자신의 관계형성자를 통해서 학습된 정보를 기억하고 구술할 경우 이는 조사자의 조사를 통해 관계 형성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습된 정보의 기억은 조사 확인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확인 여부를 통해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계형성자 정리 및 분석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자료는 크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 정보와 증빙(출처) 자료 정보로 나누어 정리한다. 인물 정보는 유학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의 기본 정보로 유학자에 관한 제반 자료에서 추출된 사람들의 정보이다. 출처 자료 정보는 관계망을 형성한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의 정보이다.

인물 정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유학자의 대상이 확대될 때 제2, 제3의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가며 상호 관계성의 외연을 넓혀 나간다. 자료 정보는 유학자와 관계형성자의 관계 기술(記述)에 필요한 증빙으로 관계 분류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분해 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1) 조사자료 정리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를 조사할 때 관계를 맺은 관계형성자의 정보는 다

양하다. 개인을 특정하는 기본 정보(생몰년, 거주지, 자, 호, 관력, 학력 등)를 갖춘 경우도 있고, 단지 성명과 출처정보(성명이 기재된 자료 정보)만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설정해야 한다.

인물 정보자료는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로 나뉘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정리항목은 성명(한글, 한자), 출생년도, 사망년도, 본관, 자, 호, 출신지, 거주지, 성별, 저서 등을 기본으로 하고 분류 항목으로 분야, 유형, 시대 등을 설정하고 있다. 상세 정보는 정의, 개설, 생애와 활동사항, 학문세계와 사상, 상훈과 추모 등이며 이외에 참고문헌과 관련시청각 자료를 추가하였다.¹⁹⁾

네트워크 관계형성자 인물 정보는 인물(관계형성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정보, 관계 형성 분류 정보, 인물의 출처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인물의 기본정보는 인물의 고유번호, 성명(한글, 한자), 생년(간지, 서기), 몰년(간지, 서기), 자, 호, 본관, 거주지, 문집, 비고 등을 기본항목으로 한다. 비고 부분은 선대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문인록이나 인명부류 등에 나오는 정보를 부기한다. 인물 정보 메타데이터는 주대상자와 관계형성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값으로 작성한다.

유학자(주대상자)와 관계형성자 관계 정보를 구성하는 메타데이터는 관계 분류와 관계기술로 구성한다. 관계분류는 관계유형분류를 의미하며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고 각 관계형성자는 다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관계분류 유형은 학연, 혈연, 단체, 지인 등으로 대분류하고 각각 중분류를 설정하여 관계형성자를 그룹핑한다. 유학자 네트워크 관계유형 분류(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현황은 한상길,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2008 참조.

〈표 2〉 네트워크 인물 기본정보 메타구성

연번	고유번호	한글명	한자명	생년	생년(서기)	몰년	몰년(서기)
1	1682	강대형	姜大馨	고종己巳	1869		
2	1080	강맹희	姜孟熙	고종丙申	1896		
3	857	권순명	權純命	고종辛卯	1891		1974

자	호	본관	거주	거주지	문집	비고
		晉州	전라북도	金堤	春山墨田	
承三		晉州	전라북도	金堤	玩休齋實紀	通溪進中後
顧卿		安東	전라북도	井邑	陽齋集	文正公菊軒溥後

〈표 3〉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관계유형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분류 내용
학연	은사(恩師)	집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르침을 받은 관계
	동문(同門)	같은 스승을 모시거나 같은 학교에서 수학한 관계
	제자(弟子)	집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르침을 받은 관계
	종유(從遊)	다른 문인과 교류하는 관계, 제전·삼전 제자 관계
혈연	친족(親族)	8촌 이내 종인
	친척(親戚)	8촌 이외 종인
	처가(妻家)	처가
	외가(外家)	부모의 외가까지 포함
	기타(其他)	사돈, 친족·친척·처가·외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체	서원(書院)	서원 활동을 통해 형성된 관계
	향교(鄕校)	향교 활동을 통해 형성된 관계
	계회(契會)	모성계, 위성계 등과 같은 계와 시회 등 유학 관련 모임 관계
	학교(學校)	근대 교육기관을 통해 형성된 관계
	일반단체	근대 사회화단체 등을 통해 형성된 관계
지인	동향(同鄕)	동일한 지역(시군단위)에 거주하는 관계
	기타(其他)	학연 또는 혈연,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관계 형성이 불분명한 관계

- 학연 : 유학자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학의 사승(師承)에 해당한다. 16세기 이후 학파가 형성 분화하면서 학맥은 유림의 사상적 범주

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유학자의 사상과 행동은 학맥의 특성에 따라 동질한 경향을 띤다. 사승관계를 정하는 요소는 집지 여부이지만 관계 유형 분류에서는 ‘집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급문(及門) 역시 사승관계에 규정한다. 사승관계를 띄고 있지는 않지만 학문적 교류를 하는 다른 문인에 속한 유림과 재전·삼전 제자들은 종유(從遊)로 분류한다.

- 혈연 : 유학자의 혈연관계 분류로 관계 형성의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친족, 친척, 처가, 외가로 기본 분류하며 주대상자(유학자)를 중심으로 사돈이거나 친족, 친척, 처가, 외가 등에 속하지 않는 관계는 기타로 분류한다.
- 단체 : 유학자 사회관계를 그들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에 의해 분류하는 것으로 서원, 향교, 계(契)와 회(會), 학교 등을 기본 분류하며 근대 사회교화단체 등은 일반단체로 분류한다. 단체의 증분류는 다분류 적용이 가능하다.
- 지인 : 네트워크에 속하는 사람 중에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의 분류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여 아는 사람들이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의 분류이다.

관계기술(關係記述)은 주대상자(유학자)와 관계형성자가 관계를 맺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은 시점과 계기,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류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계기술에 정리된 내용은 관계 출처 정보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 정리되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출처정보는 관계형성자의 성명이 수록된 자료의 출처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주대상자(유학자)와 관계형성자의 관계기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군의 출처정보를 포함한다. 출처정보는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제반 자료의 정보로 고전적(도서), 고문서, 금석문 등이다.

고전적(도서)의 경우 고전적의 기본 서지사항(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소장처)과 출처정보(도서 내 권차, 항목, 면수 등)로 구성하고, 고문서 자료는 제목, 작성자, 수신자, 작성연도, 소장처 등을 작성한다. 금석문은 명

칭, 제작자, 제작연도, 소장처(위치) 등을 정리한다. 출처정보는 주대상자와 관계형성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확인 가능하도록 메타항목을 구성한다. 자료 자체의 위치(소장) 정보와 자료 내의 출처정보를 제시하여 제공한다.

(2) 조사자료 분석 방향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자료는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과 과정 그리고 교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들 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관계를 형성하는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형성 자료의 내용 분석은 시간적 배열을 토대로 진행한다. 시간적 배열 분석은 주대상자(유학자)와 관계형성자의 관계성을 시간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시간적 맥락은 상호 간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이 함께 고려될 때 관계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기술에 포함될 시간적 행동과 교류 양태가 파악될 수 있다.

시계열 분석은 관계성의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학자 개인의 사상적 행동 변화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변동과 지역공동체 내의 사건 사고 등이 네트워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학자(주대상자)의 공간적 이동분석과 관계형성자의 교류 모습을 유기적으로 분석한다.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기 이전 유학자의 네트워크는 유학자의 거주 또는 이동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학자가 어디에 거주하였고 어느 곳에서 강학했으며, 유람 또는 방문 등으로 일시 머무른 곳이 어딘지를 조사한 뒤 지역별 관계형성자와의 연계를 상호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학맥으로 분류되는 관계형성자들의 경우 유학자의 동선과 집지 시기, 거주지 등을 연결해 분석하면 관계 형성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유학자의 동선은 이동 지역 내 이슈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계형성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셋째, 집단 지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형성 출처정보들의 내용 분류에 의한 주제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관계 형성 유형 분류가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출처정보의 내용 분류는 토픽에 대한 주대상자와 관계형성자 사이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대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관계 형성 집단과의 주된 논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분류에 대한 관계망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면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처정보 중 3·1운동에 대한 유학자 및 관계형성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통해서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내용분류에 의한 출처정보의 빈도수는 해당 관계형성자와의 주된 교류 형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관계 형성의 밀집도를 증명한다. 비록 문집 편찬이 주대상자인 유학자 개인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인 집단 내에서 상호 간의 관계도 깊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는 상호 간의 결과 값을 반영할 때 상호 의존도에 의한 관계의 속성을 분석할 수 있다. 주대상자인 유학자와 관계를 맺은 사람의 관계 형성 유형에 따라서 두 사람이 위계성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의존의 역함수에 의해 권력이 발생한다는 교환이론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칭인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의존도가 결정된다.²¹⁾

20) 지식인의 지도와 관련해서는 하버드-연칭연구소와 북경대학이 공동 구축하고 있는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CBDB)가 대표적이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DB 역시 전근대 지식과 지식인의 관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DB이다. 진재교, 「빅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제98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7.6.

21) 김용학, 앞의 책, 11쪽.

〈표 4〉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출처정보 분류(예시)

대분류	중분류	비고
사상관 (思想觀)	성리설(性理說)	성리설, 이단설 등과 관한 논의 논쟁
	예설(禮說)	상례, 제례, 혼례, 복례 등 예법 강설이나 문답
	종교론(宗教論)	기독교, 불교, 사교(邪教) 등의 인식과 비판
	서양철학(西洋哲學)	근대 서구 사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
수양관 (修養觀)	수신론(守身論)	심성 수양을 위한 유학자의 태도
	공부론(工夫論)	경서(經書) 공부법- 유학자가 항시 유념해야 하는 학문의 태도
시대관 (時代觀)	근대인식(近代認識)	근현대 정치, 정책, 사건, 문명, 산업 등의 인식
	생활인식(生活認識)	근현대 일제강점기 식민지 생활 모습과 문화 인식
	대외인식(對外認識)	중국, 일본, 영국, 미국 등 외국에 대한 시대 인식
대인관 (對人觀)	인사청유(人事請誘)	감사, 사과, 안부, 거절, 요청
	사회평론(社會評論)	단체, 조직, 인물, 문집 등에 관한 평가

예를 들어 주대상자와 학맥>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형성자들 사이에 주대상자와의 의존도나 관계밀집도는 상호 간의 관계 출처정보들의 집중도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대상자인 유학자의 제자들에 대한 출처정보 빈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의 은사에 대한 출처정보 빈도와 비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분석은 주대상자의 출처정보와 제자의 출처정보를 상호 비교 분석했을 때만 그 속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 형성을 조사 분석함에 있어 문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변 정보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집은 편찬의 주체가 주대상자인 유학자이거나 그 문인들이거나 성리학적 규범을 편찬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집 내 출처정보는 선택된 정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한된 정보 분석을 통해서만 관계성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집 편찬 때 ‘산삭(刪削)’된 자료들이나 편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주변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분석 대상자들의 집안에 보관된 간찰은 관계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3.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

효율적인 근현대 연구를 위해서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의 인물 정보가 필요하다. 신분제의 붕괴로 양반 중심의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주도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근현대 연구의 광범위한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없다.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연결된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이나 한국족보자료 시스템 역시 근현대 인물의 정보화율은 미미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한국근현대인물자료의 경우 총 46,627건의 인물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록자료는 1908년판 대한제국 직원록, 1910년부터 1943년까지의 조선총독부 직원록, 1952년판 대한민국 직원록을 정보화하였고, 일제강시대상인물카드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관계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근현대기 유림에 대한 인물 정보를 구축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 간의 관계유형을 상호 간에 분류한 뒤 출처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인물 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이나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연동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스키마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

유학자 네트워크는 단순한 인명정보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망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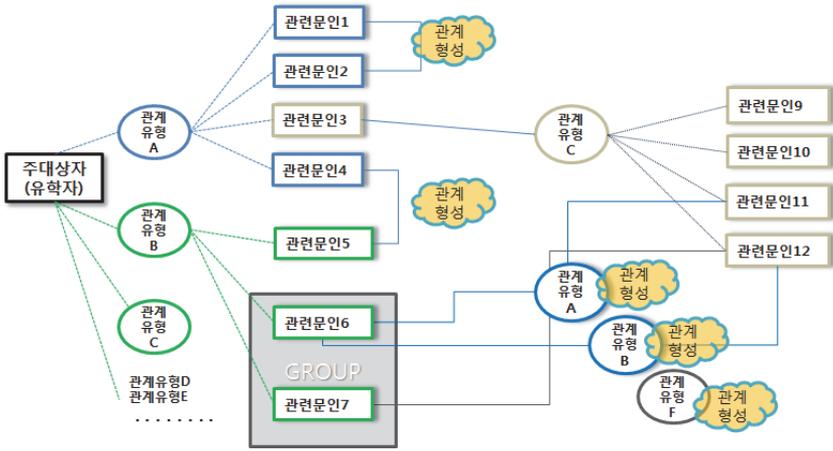
첫째, 근현대 유림의 기본정보(성명, 생몰년, 자, 호, 본적 등)를 정리하고 유학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거자료(출처정보)를 서비스한다. 이는 연구자들이 찾고자 하는 근현대 유학자 또는 인물들이 어느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

다. 유학자 기본 정보는 출처 목록 일체를 제시해야 한다. 출처는 출처 유형에 따라 새로운 관계 형성 값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명DB와 차별화하는 것은 출처 목록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재배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인명 기재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인록 등과 같은 출처 자료별 재배열을 통해 집단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근현대 유럽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관계형성자들의 관계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출처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분석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자료의 집적은 유학 연구에 있어 사상적 흐름뿐 아니라 교류의 속성을 증명하게 함으로 연구의 질적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관계망 시스템 내 업로드 되는 인물은 유학자로 국한하지 않는다. 유학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인들까지를 포함하며 일반인의 기본 정보와 출처정보가 함께 수록될 것이다. 유학자 네트워크는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로서 유학자의 인적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유학자의 경우 다음 단계의 관계형성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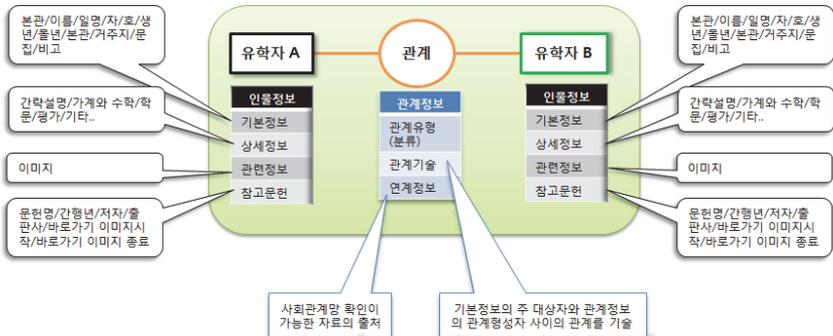
셋째,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몇 개의 자료만으로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자료를 활용하여 풍부한 검토와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인명 자료의 집적을 통해서 A와 B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근현대 유학자 연구가 종장(宗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파 내의 문인 상호 간 또는 A문인과 B 또는 C문인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계망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특정한 상호 간의 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인명의 관계망이 구축된 경우 확장된 인명들 사이의 관계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관계망시스템의 핵심은 관계 형성 요소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은 상호 간의 관계 형성 유형분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때 시스템의 이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관계망 시스템의 개념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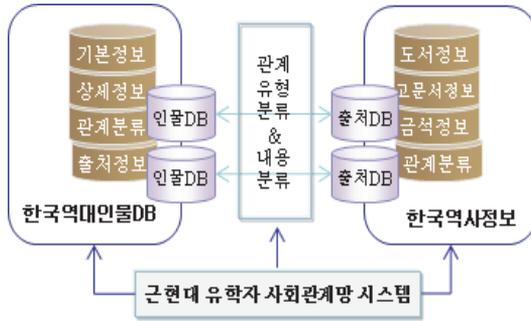


<그림 1> 근현대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념도

관계망시스템은 1:1 관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파생된 관계정보들이 상하위 단계로 중복되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용별 분류에 의해 유학자의 네트워크가 재배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인적 관계망이 주제 관계망으로 재구성될 때 주제에 대한 집단 지성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스템 내 출처정보들이 인적 관계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관계를 맺고 있는 유림의 관계 형성을 구조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구조



〈그림 3〉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

관계망시스템은 인물DB와 출처DB를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인물DB의 기본 정보와 상세정보 등은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에 연계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며 출처DB는 한국역사정보시스템, 한국근현대인물 자료 등과 연계해야 한다. 관계분류는 두 DB 간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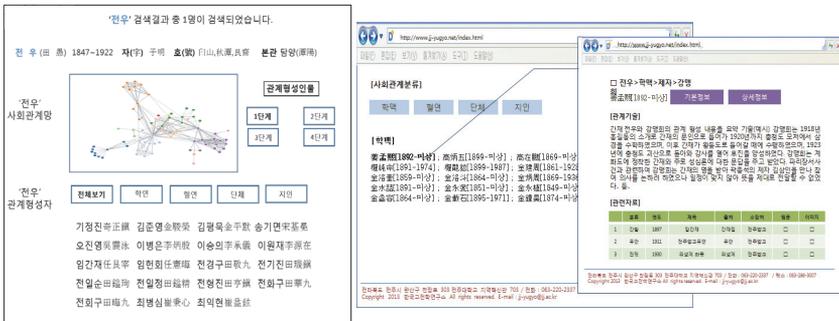
2) 유학자 네트워크 시스템의 과제

관계망시스템이 이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계유형분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관계유형을 구분하고 관계 유형에 따라 관계형성자를 재배열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계형성자 상호 간의 관계 유형 값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A와 B의 관계유형이 사제 관계라 할 때 스승인 A와 제자인 B의 관계 값은 ‘사제’로 구분되어야 하며 스승과 제자의 구분 값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문제는 관계유형 분류 값을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학맥 관계의 경우 학맥<스승, 학맥<제자, 학맥<종유 등의 값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혈연이나 단체, 지인 등의 관계분류의 경우 그 세부 값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혈연의 경우 광범위한 족보 조사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의 전체 값을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인의 경우 동일한 지역의 거주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이 역시 관계형성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야 가능한 분류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근현대 인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강화로 인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현대 유학자 관계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많은 인명 자료를 출처별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주대상자(유학자)를 중심으로 관계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유형은 세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되 대분류 단계의 관계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일 것이다. 이는 간재 전우의 네트워크 분석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 구현 예시

3)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사회관계망 분석(예시)

간재 전우(田愚, 1841~1922)는 근현대 한국 유학에 영향력이 가장 큰 유학자로 전복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간재와 그의 문인집단인 간재학파는 ‘간재학’의 이름으로 지속적인 학문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유학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²²⁾ 간재에 관한 연구는 150여 편에 이르며, 간재학파의 문인 연구는 100여 편에 이르러 총 250여

〈표 5〉 간재전집 내 문체별 관계형성자 추출

문체	건 수	관계형성자 건수	관계 형성자	문체	건 수	관계형성자 건수	관계 형성자
家狀	1	1	1	詩	190	59	67
告祝	6	1	1	諡狀	1	1	1
觀善錄	9			神道碑銘	4	1	1
記	59	39	44	語錄	4		
記疑	4			年譜	3	1	2
銘	54	38	38	遺墨	1		
墓碣銘	17	14	14	字辭	6	6	5
墓誌	4	2	2	箴	4	3	4
墓誌銘	7	6	6	雜著**	459	207	214
墓表	12	6	7	傳	16	5	4
跋	127	102	102	祭文	662	658	626
碑	3	1	1	題跋	49	24	24
碑記	1	1	1	中庸諺解	1		
上樑文	1			贊	17	11	11
序	86	68	78	尺牘	309	308	310
書	4,053	3,862	1,826	行錄	4	3	3
性理類選*	539	414	236	行狀	17	8	8
頌	1	1	1	婚書	4	4	4
총 건수	6,737 건	3,642 명		중복인원 제외 관계형성자 수: 2,298명			

* 교류성격을 가진 책을 포함한, 사상 논변 문건으로 관계형성자 추출은 당해 문서에서 이루어짐

** 사상을 논변한 문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형성자 추출은 교류한 문서에서 이루어짐

2,136명이 간찰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총 인원 3,642명의 58.6%이다. 『성리유선』 236명을 포함하면 65%를 차지한다. 유학자의 관계형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체는 간찰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문체와는 달리 간찰은 근현대 유학자의 주요 소통 수단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둘째, 파악된 관계형성자의 관계유형을 정리하면 학연이 1,511명, 혈연이 80명, 지인이 1,044명에 달하여 관계형성자는 학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중분류 단위까지 세분화하면 은사 1명, 동문 33명, 제자 1,429명, 종유 48명, 친족 16명, 친척 59명, 혈연 기타 5명, 지인 기타 1,044명이다.

주로 혈연관계에서 제자와 종유가 중복되어 있어 전체 인원은 2,573명이다. 지인 기타가 1,044명에 달하는 점은 관계형성자의 유형 분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40.6%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관계망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셋째, 전우 문인의 출신 지역 분포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지역별로는 전북, 전남, 충남이 50%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우에게 집지를 받은 제자들은 8도에 모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근현대 전우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이다. 권역별로 보면 전우는 호남, 충청, 경상 중심의 문인 분포를 보이며 북한 지역에서는 함경도가 중심이다. 반면 평안, 황해, 강원, 경기(서울)는 상대적으로 적다.

<표 6> 전우 문인 출신 지역별 분포

연번	지역	인원(명)	비율(%)	연번	지역	인원(명)	비율(%)
1	전북	453(356)	25.7(25.9)	10	북간도	19(10)	1.1(0.7)
2	전남	373(320)	21.2(23.2)	11	제주	17(9)	1.0(0.7)
3	충남	183(163)	10.4(11.8)	12	강원	16(12)	0.9(0.9)
4	함남	135(116)	7.7(8.4)	13	평남	15(14)	0.9(1.0)
5	경남	125(104)	7.1(7.6)	14	평북	13(12)	0.7(0.9)
6	경북	125(107)	7.1(7.8)	15	경기	13(13)	0.7(0.9)
7	미상	125(18)	7.1(1.3)	16	서울	3	0.2
8	충북	101(89)	5.7(6.5)	17	황해	3(2)	0.2(0.1)
9	함북	42(32)	2.4(2.3)	합계		1,716(1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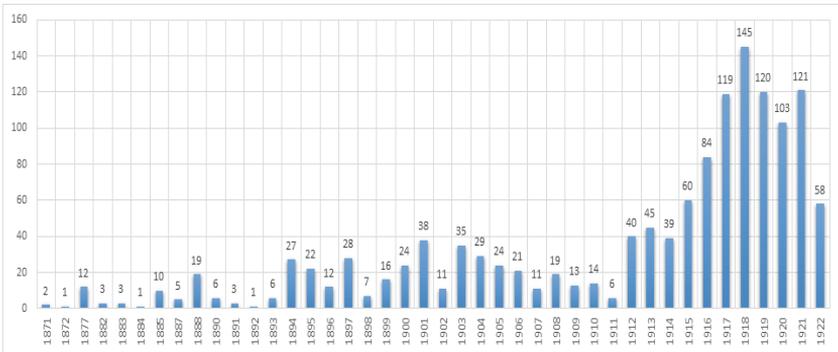
* ()의 수는 집지 시기 확인이 가능한 문인(충남대학교 소장 관선록)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는 전우의 강학활동 시기와 관련이 깊다.²⁴⁾ 연도별로 전우의 문인 증감 추이를 보면 <그림 6>과 같다. 전우의 문인은 1884년~1910년 사이에 10명~20명 내외 증가하다가 1912년 이후 4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24) 전우의 강학활동과 지역별 문인의 관계는 서종태, 「艮齋 田愚의 전라도 문인집단 형성 - 『觀善錄』의 전라도 문인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78, 조선시대사학회, 2016; 서종태, 변주승, 「艮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역사문화학회, 2017 참조.

1917년 이후 매년 1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시기별 문인의 증가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18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라남도는 19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 함경남도는 1897년을 전후로 감소하였다가 1917년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190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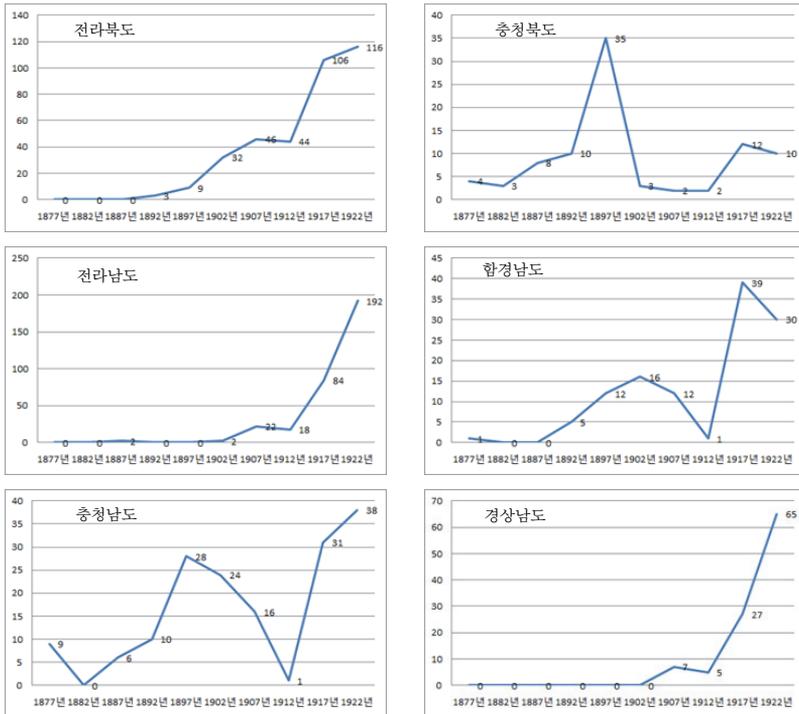
〈그림 6〉 간재 전우 문인 연도별 증감 추이

전우의 문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계화도에 정착하여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한 1912년 이후이다. 계화도를 중심으로 간재의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북간도 지역까지 문인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계형성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관계망의 연결점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심부와 반중심, 변방은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중심부와 변방의 매개 존재로서 반중심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임헌회는 전우의 스승으로 말년에 집지한 제자들을 전우에게 보내 전우의 사회관계망에 포함시켰다.²⁵⁾ 전우와 종유했던 부령 김씨는 7명으로 모두 지포 김구의 후손이었다. 부령 김씨와의 사회관계망은 부령

25) 1862년 임헌회에게 집지하려 한 오강표(吳剛杓)와 아들 임간재(任良宰)를 전우에서 보냈으며, 1882년 1월 임헌회의 장남 임진재(任震宰)는 동생 임전우를 데리고 전우의 거처인 문곡강당으로 와서 수학하였다. 서종태, 변주승, 위의 논문, 136쪽.

김씨 김연술(金淵述)과 김방술(金邦述)이 각각 1897년과 1900년에 전우에게 집지하였기 때문에 형성되었다. 간재는 김구의 유허비음기(遺墟碑陰記)를 짓기도 하였다.²⁶⁾



〈그림 7〉 전우 문인 지역별 증감 추이

4. 맺음말

탈유교사회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조선의 멸망과 더불어 식민 근대화
화와 함께 조성되었다. 식민지배 체제의 정착을 위해 조선 유학의 책임론이

26) 서종태, 앞의 논문, 218쪽.

등장하면서, 유교는 민족성 논의와 연결되면서 해체해야 하는 전통문화의 유산으로 치부되었다. 그렇지만 다카하시 도루가 지적했던 것처럼 조선에서 유학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²⁷⁾ 유학의 근현대적 의미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근대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위해 왜곡된 인식을 확산하였지만 전통 유학의 도통을 이으려는 유림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 유림들 역시 근대사회 속에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근대의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근대 이행기 전통적 유학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승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였다. 탈유교사회 유림의 네트워크를 분석해야 하는 것은 유학과 근대의 상관성, 유학의 근현대적 변용 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림의 네트워크 분석은 근현대기 유학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전근대에 비해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살았다는 점에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제한으로 특정 관계형성자를 적시하여 관련된 개인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근현대 유림의 네트워크 분석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의 문집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유학자의 문집 안 다양한 문체 속에서 많은 관계형성자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기 다양한 문인록이 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출된 인명과 문인록의 정보를 비교 정리할 수 있다. 문인록에는 본관, 성씨, 거주지, 호(號), 자(字), 선대 조상 등이 정리되어 있어 개인을 적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명부가 된다. 기본적으로 추출된 인명을 토대로 족보, 자료 수집, 구술조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 미확인된 인명을 추가한다.

유림 네트워크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회관계망 시스템은 인명DB를 중심으로 정리되며 인명

27) 다카하시 도루, 위의 책, 90쪽.

의 출처정보를 종합한 출처DB와 연동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먼저 근현대 유럽과 관계형성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를 정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학자와 관계형성자 사이의 관계유형을 분류 정리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자와 관계형성자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기술[關係記述]해야 한다. 관계 유형 분류는 관계유형에 따라 네트워크를 재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만 관계유형의 값을 세분화하기에는 자료의 구축 여건상 지난한 문제이므로 대분류 단계의 유형 구분으로 진행하되 세부 분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관계망 시스템은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공간 이동분석과 네트워크의 형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관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두 명 이상의 유학자 또는 사람의 관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관계망 시스템은 근현대 인명DB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학자의 네트워크가 유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유학자가 아닌 일반인들과의 관계 형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에는 유학자만 업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까지를 포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다음 단계의 관계형성자 즉 유학자와 관계를 맺은 일반인이 맺고 있는 다음 단계의 관계형성자까지는 구축하지 않는다.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학자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은 근현대 유학자 인물 정보의 확인과 유학자의 시계열적 공간적 이동 분석을 통한 관계 형성의 확산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각각의 인물 정보가 수록된 출처 목록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관심 사항을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 연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간재 전우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자료의 수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집이 효율적인 조사 자료이기는 하지만 문집의 특성상 산산된 자료가 많을뿐더러 유학적 담론을 중심으로 편찬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산재해 있는 낱장의 고문서 자료의 적극적인 조사 수집을 통해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생산된 문서 또는 도서 자료 등의 인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良齋全集』

『華嶠淵源錄』

『昭義新編』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2015.

다카하시 도루 지음, 구인모 역,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9.

한국역대문집총서 문체분류, 한국학종합DB, 미디어한국학.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김경호, 「탈식민과 한국유교-식민지 근대성의 그늘, 너머-」,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2집, 2015.12.

박학래,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연구」, 『울곡사상연구』 제26집, 울곡학회, 2014.

_____, 「간재 전우와 간재학파 연구 현황 및 과제」, 『공자학』 제30호, 2016.

서종태, 「良齋 田愚의 전라도 문인집단 형성 - 『觀善錄』의 전라도 문인을 중심으로 - 」, 『조선시대사학보』 78, 조선시대사학회, 2016.

서종태, 변주승, 「良齋 田愚의 충청도 중심강학 활동에 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역사문화학회, 2017.

설주희, 「간재 전우 문인록의 편찬과 특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 2016.6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체제」, 『한국문화』 72, 2015.

진재교, 「빅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 『대동문화연구』 제98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7.

최재석, 「자료-일제하의 족보와 동족집단」, 『아세아연구』 12(4), 1969.

한상길,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200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An Essay on Confucian Network of Post-Confucius Society

HONG Seong-duk

This paper is a kind of an essay to suggest the directions to analyze social networks of Confucian scholars in modern and contemporary era and construct the appropriate system for the study. With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ruling, Korea became a post-Confucian society. The colonial modern times required deconstruction of Korean traditions, which forced Korea to get out of its Confucian culture. However, traditional Confucian scholars didn't exclude their Confucian culture. Even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as a modern society, the scholars didn't give up inheriting Confucianism constructing their own social network.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social network in the post-Confucian society,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essentials and status of Confucianism at that time.

With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topographical map of Joseon's Confucianism more clearly, and change the studying paradigm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onfucianism. In addition, we may understand the diversity that the Confucianism has in contemporary Korea. Further, understanding the canonicity of Confucian culture in the post-Confucian society, we can suggest the functions of Confucianism for the healthy Korean society for the 21st century. The social network analysis begins from extracting relation-promoters from scholars' personal anthologies. Social network analysis should be rearranged according to time series, and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each scholar and the relations of personal network formation should be clarified. Further, corroborative data to understand the relation density among scholars should be suggested, and they

should be verified upon the hierarchy of relationships.

In the Confucians' social network system, there should be included human information of both modern and contemporary scholars and common people, and the information of the sources should be provided as well. For thi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database of names and their sources, and categories of types and description explaining mutual relationships among scholar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how two unspecified scholars could be linked should be analyzed and provided visually. In fact, inform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scholars is rather difficult to get than that of premodern scholars. Thu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be expanded and changed more easily.

Key Words : post-Confucian society, Confucian scholars, social network,
relation promoter, Confucians' social network system

TAE-DONG REVIEW OF CLASSICS

Volume 45, December 2020

Special Issue

Study on *Indo*(人道) of Yugyobusikhoe(儒教扶植會)

SUH Junghwa

Symbolism of Seokjeon and the Colonial Transformation of Hyanggyo Seokj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NG Soon-soon

Establishment of Community in Jeonju-hyanggyo(全州鄉校) and Community Activities in Modern History

SEOL Juhee

An Essay on Confucian Network of Post-Confucius Society

HONG Seong-duk

A Re-discussion of Tao Yuanming's Family Standing: An Investigation Based on Official System

LIU Yi, CHOI Jiyoung

A Study on Diverse Characters Identified from the Prefaces and Epilogues of Gandokcheop (Book of Letters and Poems) and Ganchalseoshikjip (Book of Letters)

KIM Saemio

A Study on the Old Materials of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s Collections

LEE Jung-hyo, PARK Sun-hee

An Essay on the Author(s) and the Writing Period of the *Zhouli*(周禮)

KIM Jun Hyeon

On the Structure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Park Se-chaе's(朴世采) *Sim-Hak-Ji-Gyeol*(心學至訣)

LEE Chang-il

Shin Hudam's Way of Thinking in His Theory of Four-Seven

LEE Jaebok

The Life-Communal Goodness and Life-Aesthetics in *the Book of Changes*: An Integrated Boundary without any Division of Boundaries

KIM Yon-jae

Forgiveness Interpretation of East Asian Confucianism Studies

CHO Nam ho

The Preface to *Seongho saseol yuseon*(星湖僿說類選)

CHOI Chae-gi

A Partial Translation of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Book Review: Critical Comments on *Zhouyimingyi*(周易明意)

BAEK Jonghak

Appendix

Translation

Book Review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